

이태곤, 낚시 때문에 여친과 헤어졌다고?... '돌싱포맨'

등록 2022.01.04 20:50:00



[서울=뉴스시스] '낚시광' 이태곤과 '애주가' 지상렬 "누가 누가 최악의 남친일까~" 2022.01.04 (사진=SBS '신발 벗고 돌싱포맨'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매 및 DB 금지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김예지 인턴 기자 = 연예계 대표 '낚시광' 이태곤과 '애주가' 지상렬이 SBS '신발 벗고 돌싱포맨' (이하 '돌싱포맨')에 떴다.

4일 '돌싱포맨' 측에 따르면 이태곤은 돌싱포맨을 위해 16kg짜리 초대형 특방어를 공수해 와 손수 '특방어 해체 쇼'까지 선보이며 방어회 한상을 차린다. 이에 탁재훈은 "이게 웬 횡재야"라며 초집중했다는 후문이다.

이어 낚시 마니아 이태곤은 낚시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에피소드도 공개했다. 그러자 돌싱포맨은 "만약 여자친구와의 1주년과 낚시 대회가 겹쳤다면 어떻게 할 거냐"고 질문했고, 이태곤은 상상을 초월한 답변을 전한다.

또한 애주가 지상렬은 한 달에 술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고 밝혔고, 이에 이태곤은 "여자친구가 싫어할 스타일"이라며

선을 그었다.

그러자 돌싱포맨은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보며 '최악의 남자친구 가려보기'에 돌입했고, 이태곤과 지상렬은 시종일관 "진짜 최악이다", "제가 낫죠?"라며 서로를 견제했다.

한편, 지상렬과 이태곤의 반전 케미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SBS '신발 벗고 돌싱포맨'에서 확인 가능하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hopeyeji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